

사설

불교는 무엇을 해야 하나

— 3·1정신과 독도 망연

역사란 민족의 기억의 공유를 통한 대내적 결속의 도모이다. 그러므로 역사에 대한 관심은 대외적 위기의식이 커갈 때 증폭된다. 한말에 일어난 역사적 관심이 그렇고 신채호의 역사관경이 또한 그렇다. 신채호는 역사를 한 마디로 이렇게 힘있게 정의했다. "역사란 아(我)와 비아(非我)와의 투쟁이다" 일본이 또 독도 문제를 들고 나왔다. 참으로 파란치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잊을만하면 교과서문제와 역사학도 발인으로 민족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더니 이윽고 합법적인 영토 병합의 노골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온건하고 냉철한 인사들도 분노와 열광감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적 용어는 아니랄까봐 일본 열도를 한반도라고 병합해야 풀릴 것이다. 하루라비 법정의 진리는 영원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평화적 공존의 시기인 바, 보다 성숙한 국민성과 냉철한 현실판단이 중요하다. 일본은 지금 영토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자국의 정치적 위기를 대외적 적대감으로 해결하려는 정치적 책략을 쓰고 있다. 일찌기 도요토미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그 충실한 군사력을 대외침략을 통해 소모시키려 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다. 일본은 할 수 있다면 평화법을 고쳐 무력으로 독도를 점령하려고 나설지도 모른다. 자국의 역할과 대외적 여건이 성숙할 때 일본은 지금까지 그려왔던 세계를 향해 중국과의 재연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는 진정한 이 점을 우려해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은 그때도 그렇게 당했다. 식민의 압제에 신음하던 1919년 3월1일, 우리는 자주와 독립을 외치는 거국적 쟁기를 들었다. 결과는 무력 진압이었고

유관순 누나와 태극기가 짓밟히고 붉은 피가 이땅의 신하에 뿌려졌다. 그때 불교는 무엇을 했는가. 거두절미하고 한용운이 우뚝 우리의 기억에 박혀 있다. 33인 가운데 대부분이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 거의 굴복했지만 그는 총독부가 보기 싫고 집까지 북향으로 했을 만큼 철저한 지조를 보였다.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기 행동에 대한 확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불교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초세간적이다. 일상의 모든 현실을 환상이요 마야로 보는 자제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입각한 대중적인 행동 방향을 결성하지 못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불교계의 지도자들도 제각기의 개성이 두드러질 뿐 특정한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마당에 한용운을 생각한다. 그의 위대성은 남에 대한 사랑, 불교적 인식의 깊이를 세속에 대한 처절한 인식 위에 구축한 점에 있다. 그의 시는 눈물로 쓰여졌다. 오도의 환희나 일상적 절대의 무애행이 아니라 민족적 고통에 대한 분노와 회한 그러면서도 끝내 버리지 않은 희망에 감전되지 않을 수 없다. 설총이 원효에게 도를 묻자 원효는 "선을 행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설총이 "그러면 악을 행하리라" 하자 원효는 "선을 행하지 말라" 했거늘 활차 악이란 말인가"라고 질타했다고 전한다. 불교의 최대의 병폐는 초세간적 가치에만 오로지 매달린 채 오느라 무기(無記)와 혼침(昏沈)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삶의 질을 생각하며, 정치의 현실과 이상을 따지는 세속적 선(善)의 추구에 불교계 역시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는 말이다.

열린 마당

대북 포교

범종단 차원 행정적 대책 필요한 때

원혜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요즘 들어 탈북 망명자들이 늘어나면서 북한의 붕괴 조짐에 대한 조심스러운 진단이 나오고 북한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공산권 선교활동과 북한 선교 방안이 알려지면서 불교계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 행정상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불교 신앙으로 전개되어온 불교 신행방식과 종단의 통합·정비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의 논리적 근거의 일부부분으로 치부되어온 불교사상에 대한 교정이 종단차원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사상과 제도의 정비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에게 왜 포교가 필요한가?' '그

들은 왜 불교를 필요로 하는가?' 라는 점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선교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기도 했지만 러시아나 중국 등에서 선교사가 물의를 일으키고 추방된 사례도 있다. 이는 현지사정과 주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선교활동이 빚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계는 그들의 입장에서 포교정책을 입안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포교활동을 펼쳐야 하겠다.

대북 포교 현황

최근 탈북 귀순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포교 및 귀순자포교에 대한 문제가 재검토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대북포교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계종 남북불교교류특별추진위원회를 비롯 몇몇종단과 조국평화통일추진불교인협의회 등이 간헐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마련에는 접근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개신교 천주교 등 타종교의 경우는 수년 전부터 귀순자들과 북한 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

이 가운데 불교계는 평불협 미주본부 한인회와 미주불교협의회가 매년 8·15 광복절을 비롯 비정기적으로 조선불교도연맹에 불교

를 지원한다고 발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남북불교교류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조치란 평가도 가능케 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 제스처란 점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군승단은 지난 1월 1일부터 분단 50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는 대북포교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불교를 비롯 개신교, 천주교가 참여하는 대북방송은 '마음의 등불'이란 제목으로 매주 금, 토, 일 총 15분씩 방송하며 불교는 포교활동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이래 방송하고 있어 대북포교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대북포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부처님 오신날, 성도절 등 불교행사 공동

北사찰 활용 포교활성 방안 세워야

김명철 <남순지장회 회장>

현재 북한은 원칙적으로 불교의식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김일성과 당국자들은 주민들에게 해방 후 현재까지 배타적인 종교의식과 북한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을 주입 시킴으로써 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

들이 북한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의 허구성을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에 따른 혼란을 막을 길은 이들에게 하루 빨리 정신적인 지주를 심어줌으로써 북한의 전체주민 모두가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는 종교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민족의 전통 종교인 불교계의 포교는 타 종교보다 몇 배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

은 현재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현재도 북한에서는 민족문화 보호차원에서 많은 절들을 복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기독교에서는 북한선교를 위하여 북한 현지에서 성경책을 출판하여 북한의 주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불교의 발걸음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우리 불교도 이제는 북한의 많은 사람들을 잘 이용하여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벌여나갈 때라고 생각한다.

대북포교책 연구·인재양성등 절실

이지범 <평불협 총무부장>

우리의 분단상황은 1945년 이래 반세기 동안이나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것은 남북한 지역간의 이념대립에 의한 정치체제의 갈등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체제의 이질성을 심화시켜 민족의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감소시켜 왔다.

동일은 점점 그 정당성을 잃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과 전쟁의 재방지, 인도적인 배려, 공존공영의 입지, 단일민족의 공동체, 세계사적 대립역량 과시, 세계인류 발전에 기여 등과 같은 당위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 속에 북한불교의 부문을 통해 '한 나라가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고

동시에 그 나라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법을 다루려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인 국가전략 개념의 포교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 첫째는 북한과 북한불교의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책연구와 인재양성, 단체연대를 이뤄야 한다. 둘째는 북한 포교의 침범조정과 신뢰구축이다. 셋째로는 현재 박물관 기능의 북한불교를 이념공백기의 북한사회에 중심사상이 되도록 한글세대와 불교개혁을 준비해야 한다.

조계종등 종단차원 남북불교회의 추진

직접포교보다 불서·불구지원등 우선돼야

군승단 '마음의 등불' 주3회 대북방송

서적과 불교용품 전달하는 한편 각종 국제 행사에 참석,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법타스님은 89년 방북 이후 한글을 보급하는 한편 북한문제연구소 설립하는 등 대북포교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타스님은 또 92년 석문의법과 홍가사를 비롯 북한에 전통사찰복원과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은 지난해 12월25일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협회 등을 비롯 각 종교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별별 창립 50주년기념모임에서 최초로 전국 각 사찰에 주지를 임명, 사찰운영과 신도활동 등

개회와 문화, 학술교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벽은 결코 높지않은 것이다. 하지만 대북포교는 몇 가지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 특성으로 인한 상호교류의 한계를 비롯 북한 주민은 종교와는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포교보다는 불교를 상징할 수 있는 서적, 카메라, 시계 등을 통해 불교에 대해 괴리감이 없도록 하는 간접적인 포교와 전문포교사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김종근 기자

현대만평



파이팅 코리아!!

목어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세 이상의 남녀 1천5백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직업인들에 대한 윤리수준 평가'를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구요. '신부가 가장 정직하고 국회의원은 꼴찌'라는 제목을 읽는 순간 그림 스님들은? 하는 궁금증과 함께 행여 순위가 뒤로 쳐져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가우였습니다. 스님은 신부(62.8%), 교수

(48.1%) 다음으로 3위(44.9%)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님들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볼자로서 자랑스러웠을텐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보름달처럼

어느 여성독자가 보내온 이 편지를 읽다보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한 불자의 승보의 호심을 공감할 수 있다.

승보란 무엇인가. 경전에서 승보를 교단(僧)이라고 하

면서 세 종류로 분류했다. 첫째는 재물보살들의 신성한 교단 제일의승이고, 둘째는 성문들의 교단이다. 세번째 승보는 비구·비구니교단인 羅刹僧이다. 복전승은 사막의 단비처럼 대중의 목마름을 풀어주고 편안

과 즐거움을 준다. 또 복전승은 청정하여 중생의 탐진치와 어둠을 없앤다. 마치 보름달처럼 온갖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대상이 되며, 중생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는 마니보주와 같아야

한다. 그리고 복전승이 비록 재물을 얻지 못했어도 이를 공양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얻는다고 경전은 승보귀의의 의미도 아울러 일러주고 있다.

오늘 우리의 스님들은 국민들의 직업별 윤리수준 평가 20등급 중 3위에 자족치 말고 '나는 과연 어떠한 복전승인가' 되풀이되면 좋겠다. 그리고 재가자들은 승보에 대한 귀의심을 점검해보자. 그래야만 한 국민불교는 민족종교의 위치를 되찾게 되고, 불자들은 어떤 평가 앞에서든 마음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새싹별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부끄러움을 알자

내후려야, 마땅히 알아 할 것이 다. 참히 할 줄 모르고 부끄러움이 없으면, 막아 어떤 비구가 이타 같이 행한다면 그는 온갖 악을 저지르지 않음이 없어 받지 않는 고통이 없을 것이다. 마치 때 씻은 더러운 물은 깨끗하게 사용될 수 없듯이.

(축인경)

협찬 (사) 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장 현 성

대한불교 해동종 창종 선포문

본 종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자각각타, 각행원만을 근본교리로 봉체하고 원효대사를 종조로 선포를 수지선양하며 견성성불·전법도생함을 종지로 본종의 소의경전은 화엄경으로 대승불교 사상과 이념을 구현 자비실천의 모체로써 사회복지 및 봉사정신으로 시대적 사명감과 대원력으로 도생의 문을 열어서 교화의 임무를 다하는 종단을 창종 선포한다.

1996년 2월 일

창종대표
석봉, 인현, 경호

위원

- 성타, 순주, 송산, 범봉, 대원, 법성, 대경, 종영, 상근, 송담, 대근, 창호, 선기, 영호, 인원, 원표, 형래, 선명, 경신, 영복, 상재, 순환, 우매, 무상, 학규, 해상, 용우, 기동, 제형, 덕균, 종우, 한웅, 성겸, 경희, 현효, 상욱, 기철, 원술, 상규, 상현, 광현, 대규, 영숙, 경자, 경숙, 숙희

—무순—

주소 : 경기도 용인군 수자면 성북리 393-1 / 전화 (0331) 281-0606, 262-1577 / 팩스 (0331) 262-1577